탈리타 쿰 8기 가실 성당

백색순교:
시선으로 그리고,
발걸음으로 칠하다.



가실성당 청년회(아미쿠스)

가실성당 청년회
AMICUS



발행처 가실성당 청년회(아미쿠스)

발행일 2026.09.20.

발행인 배제홍 비오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가실1길 1

전화 010) 6878-0833

편집디자인 배제홍 비오　정원복 안셀모





담긴 이야기

프롤로그: 우리의 시작

· 가실성당 청년회 소개

제 1장
시선으로 그리다:
청춘 사진관 이야기

· 청춘 사진관 개요
· 활동 내용 및 사진
· 청춘 사진관이 남긴 흔적들

제 2장
발걸음으로 칠하다:
도보 성지순례 및 피정 이야기

· 피정 개요 및 세부 일정
· '한티 가는 길' 1구간 소개
· 활동 내용 및 사진

에필로그: 감사와 나눔

· 결산 내역
· 탈리타 쿰 소감 나눔 & 사진전

프롤로그:
우리의 시작



가실성당 청년회 아미쿠스를 소개합니다

가실성당 청년회는 2024년 가실성당 청년들이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성경 모임에서 시작되어 주님의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2025년 2월, 7명의 단원으로 발족했습니다. 현재는 10명의 단원이 함께하며 작지만 단단한 일치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는 라틴어로 '친구'를 의미하는 'Amicus, 아미쿠스'로도 불리며, 이 이름처럼 서로에게는 친근한 벗이 되고, 주님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가실성당 청년회 활동

2025년 2월 발대식을 가진 가실성당 청년회 아미쿠스는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전하는 올바른 신앙 가치를 실현하고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더욱 성장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신앙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본당 환경정리부터 청년 피정, 2027 WYD 대구교구대회 발대식, 홀리 페스티벌, 아미쿠스 단합대회, 5대리구 청년의 밤, 묵주 팔찌 나눔 및 연말 사랑나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순간은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실천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미쿠스는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도움을,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이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해가겠습니다.











제 1장

시선으로 그리다: 청춘 사진관 이야기



“꽃보다 고운 우리 가실”

렌즈에 담긴 그 모습들을 따라가기

‘청춘 사진관‘은 가실성당 전체 교우의 약 33%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가실성당 청년회가 대구대교구 젊은이 사목 대리구의 지원을 받아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본당 안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봉사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선배 신앙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오늘’을 기록으로 남겨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이곳 ‘가실성당’에서 ‘백색순교’의 의미를 찾으며, 어르신들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봉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신앙의 방향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청춘 사진관 개요

일시	2026년 5월 10일(일) 주일미사 후
장소	가실성당 성모당 앞 잔디밭
참여 인원	사전 접수자 20명 및 현장 접수자 포함 총 50여 명
활동 내용	사진 촬영 및 5X7 사이즈 즉석 인화, 다과 나눔

따뜻한 햇살 아래, 분주한 발걸음과 피어나는 웃음꽃

주일 미사가 시작되기 전, 이른 오전부터 청년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행사를 위한 의자와 테이블을 나르고, 구석구석 정성껏 쓸고 닦으며 공간을 단장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과와 음료를 정갈하게 준비하고,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촬영 및 인화 장비와 나눔 집기들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며 모든 세팅을 마쳤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드디어 '청춘 사진관'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일시에 몰리며 초반 현장 안내에 작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신속하게 상황을 정돈했고, 어르신들과 신자분들께서 대기하시는 동안 불편함 없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와 다과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렌즈에 담긴 곱디고운 미소와 감동의 순간

눈부신 햇살과 아름다운 가실성당의 풍경은 완벽한 배경이 되었고, 신자분들의 미소와 어우러져 곱디고운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현장에서 곧바로 인화하여 정성스레 전달해드렸고, 사진을 받아 든 신자분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기쁨이 환하게 번졌습니다.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신자분들의 촬영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시끌벅적한 촬영 공간 분위기에 외부 방문객분들도 주위를 많이 서성이셨습니다. 이에 오늘 이 방문이 이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과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방문객분들에게도 다가가 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샷을 찍겠다는 일념 하에 한 장 한 장 정성을 기울여 촬영을 하고 인화된 사진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참된 사랑과 감사를 실천한 뜻깊은 하루

촬영 행사 동안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의 모습을 보며 청년회 역시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땀을 흘리고, 시간을 쓰며, 봉사하는 사랑의 실천과 나눔의 행복이 얼마나 따뜻한 감정인지 오롯이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어르신들과 신자분들은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며,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다”라는 진심 어린 말씀과 본당의 미래라고 치켜세워 주시는 말씀은 가실성당 청년회를 더욱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주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참된 사랑과 감사를 실천하고 나눈 가치를 기억하며 이 하루를 청년회는 마음 속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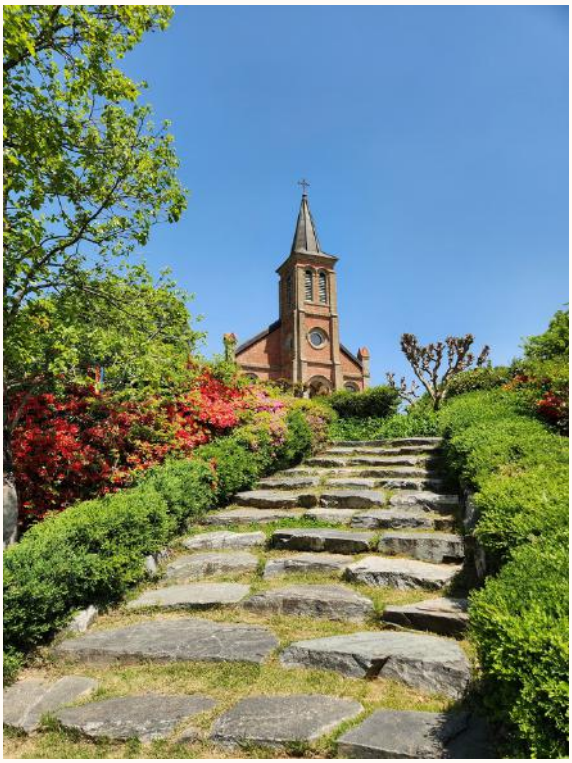


청춘 사진관이 남긴 흔적들





▲ 홍보 포스터





▲ 가실성당 포토존 2곳

제 2장

발걸음으로 칠하다: 도보 성지순례 및 피정 이야기



'청춘 사진관'을 통해 직접 깨닫고 마음에 새긴 각자의 신앙에 깊이를 더하고 색을 칠하기 위해서 가실성당 청년회는 '도보 성지순례 및 피정'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길을 걸으며, 그분들의 삶을 묵상하고,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발걸음을 한 발짝 더 내딛고 정체성을 단단히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피정에서는 다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며 청년회 서로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였고, 떼제 기도를 통해 각자의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은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는 힘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나아갈 우리의 모습, 그리고 가실성당 청년회의 내일을 그려봅니다.



순례 및 피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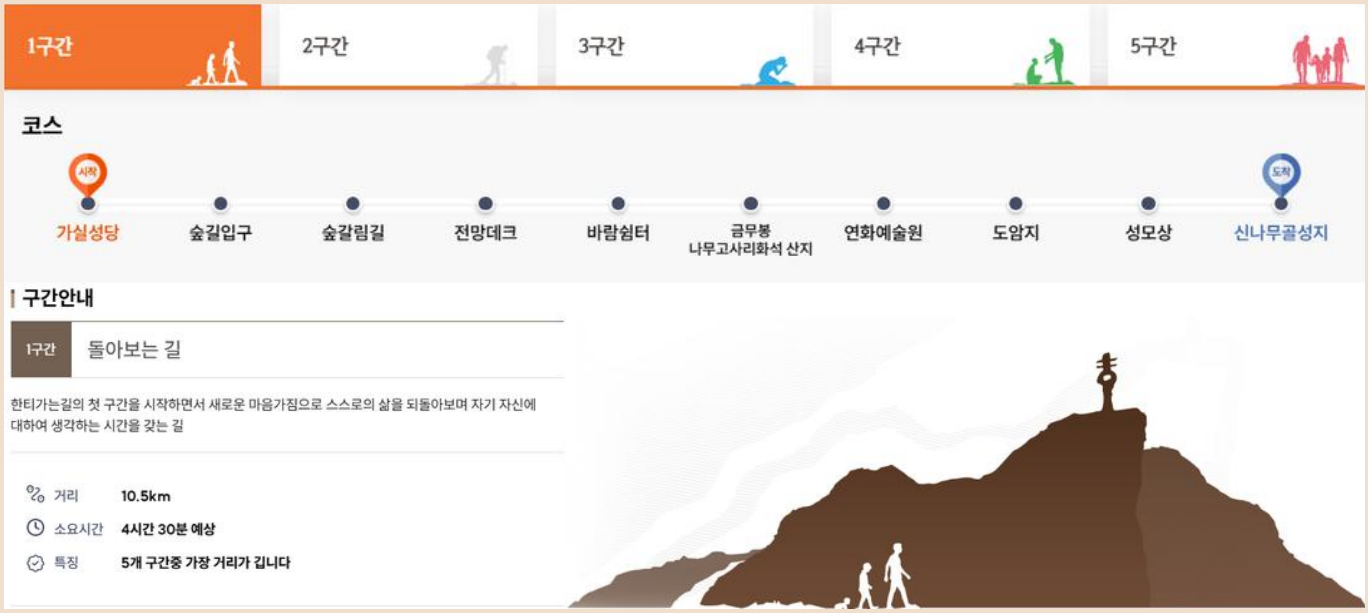
일시	2026년 8월 22일(토) ~ 23일(일) (1박 2일)
장소	가실성당 - 신나무골 성지 / 세아수목원휴양림
참여 인원	가실성당 청년회 8명
활동 내용	한티 가는 길 1구간 도보 순례, 젊은이를 위한 기도, 친교 레크리에이션, 떼제 기도 및 신앙 나눔

세부 일정



날짜	시간	프로그램	주요 내용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1일차	06:30 ~ 07:00	여정의 시작	• 집결 및 신부님 강복
	07:00 ~ 08:30	길을 걷다	• 한티 가는 길 1구간, 돌아보는 길 출발
	08:30 ~ 09:00	묵상의 길	• 전망데크 도착 • 묵상
	09:00 ~ 12:00	맞춰지는 발걸음	• 도보 순례
	12:00 ~ 13:30	나눔, 쉼	• 신나무골 성지 도착 • 점심식사 나눔 • 휴식
	13:30 ~ 14:30	기리다	• 젊은이를 위한 기도 (WYD 기도문) • 개인 기도
	14:30 ~ 15:00	나아가기	• 장보기 • 숙소 도착
	15:00 ~ 16:00	나아가기2	• 짐 정리 및 휴식
	16:00 ~ 18:00	친교의 시간	• 레크리에이션
	18:00 ~ 20:00	사랑의 식탁	• 저녁 식사
	20:00 ~ 21:00	어둠 속의 빛	• 폐제 기도
	21:00 ~ 22:00	나의 색은 무엇입니까?	• 신앙 고백 • 탈리타 쿰 소감 나눔
	22:00 ~	백색의 밤	• 마무리 및 취침
2026년 8월 23일 일요일 2일차	07:00 ~ 08:00	아침의 햇살	• 기상 및 조식
	08:00 ~ 09:00	깨끗하게 비우기	• 정리 및 분리수거
	09:00 ~ 09:30	우리의 삶 속으로	• 마무리 • 주일 미사 참여

‘한티 가는 길’ 1구간 돌아보는 길



‘한티 가는 길’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살며 교우촌을 형성했던 팔공산 한티 순교성지까지 이어지는 총 45.6km의 순례길입니다. 그중 가실성당에서 출발하여 신나무골 성지에 도달하는 1구간 돌아보는 길은 전체 5개 구간 중 10.5km로 가장 긴 거리를 자랑합니다.

1구간의 순례 코스는 가실성당을 시작으로 숲길입구 → 숲갈림길 → 전망데크 → 바람쉼터 → 금무봉 나무고사리화석 산지 → 연화예술원 → 도암지 → 성모상 → 신나무골 성지 차례로 이어집니다.

1구간의 도보 순례는 보통 4시간 30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가실성당 청년회는 묵상과 기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 도보 이동에만 약 4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순례자를 위한 깨알 정보

- 휴식 공간: 코스 중간마다 벤치와 데크 등 쉼터가 잘 마련되어 있어 잠시 숨을 고르고 체력을 보충하며 나아가기에 좋습니다.
- 양심냉장고: 도암지 코스 부근에는 양심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 목을 축일 생수나 시원한 아이스크림 등을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이용: 산길 특성을 고려해 출발지인 가실성당의 깨끗한 화장실을 미리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산길 코스인 바람쉼터와 도착지인 신나무골 성지에도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산길 특성상 이용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신나무골 성지 화장실은 2026년 8월 기준 개선 공사 진행 중으로 임시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례길에서 마주하는 우리

2026년 8월 22일 아침, 도보 순례의 출발지인 가실성당에 모인 청년회원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순례를 시작하기에 앞서, 손재주가 뛰어난 청년 한 분이 직접 만든 수제 손수건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며 든든한 응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날은 본당 전 신자 환경 정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덕분에 신부님의 따뜻한 강복과 신자분들의 격려를 한 몸에 받으며 한층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순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김밥)





전날 내린 비로 흙길은 다소 질척였지만, 예상보다 시원한 날씨와 개인 하늘에 우리는 더욱 힘을 내었습니다. 산행이 이어지면서 지칠 법도 했지만, 청년들은 틈틈이 서로에게 벌레 기피제를 뿌려 주고 물을 건네며 서로를 이끌었습니다.

길을 걷다 당도한 전망데크에서는 옹기종기 모여 간식으로 받아 온 김밥을 나누며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벌떼의 등장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서둘러 자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후 도착한 바람쉼터에서 앞서 다하지 못한 묵상과 기도를 바친 뒤, 다시 신나무골 성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속되는 오르막과 점점 뜨거워지는 뙤약볕에 모두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지칠 무렵, 마침내 신나무골 성지를 알리는 마지막 표지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힘을 쏟아냈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벅찬 성취감과 해냈다는 기쁨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성지의 쉼터에 둘러앉아 정성스레 싸 온 도시락을 나누며 달콤한 휴식을 취한 우리는, 고즈넉한 한옥 성당에 들어가 '젊은이를 위한 기도'와 각자의 지향을 담은 기도를 바쳤습니다. 비록 4시간 남짓한 짧은 순례였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나눈 고통과 기쁨, 그리고 사랑의 가치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박해를 일상처럼 견뎌낸 순교자들의 숭고한 정신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던 오늘의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는 다음 여정인 피정 장소로 향했습니다.







백색의 밤

피정 장소인 세아수목원휴양림에 도착한 청년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지친 몸을 풀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잠깐의 휴식 후 우리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던 퀴즈와 게임이 유쾌하게 진행되었고, 모두 함께 웃으며 재미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끈끈해졌고 가실성당 청년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다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어 먹으며 식탁에서의 친교를 이어 나갔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웃고 즐기는 사이 어느덧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은은한 촛불이 밝게 불을 밝히는 떼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낮 동안 순례길을 걸으며 마주했던 육체적 한계와 마음속 깊은 곳의 묵상들을 가만히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떼제 성가에 기대어 온전히 자신을 성찰하는 동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으며 힘이 되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치고 넘어질 것 같은 와중에도 은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탈리타 쿰'의 깊은 신앙적 울림을 다 같이 외치고 모두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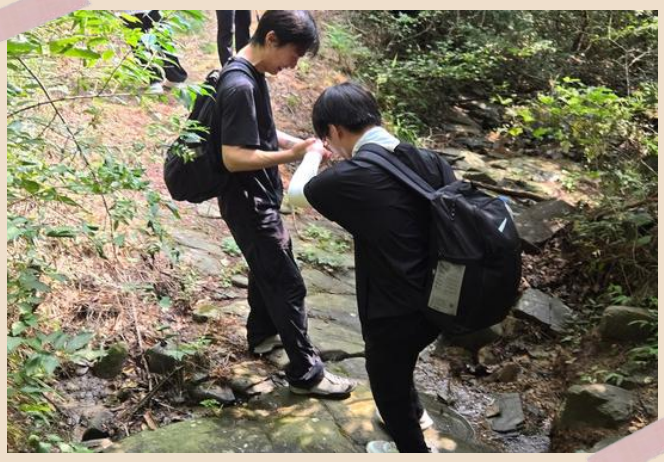
기도를 마친 후, 하루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탈리타 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각자의 내면과 신앙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나아갈 힘을 얻고 갈 수 있었다'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지닌 초인적인 힘을 경험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진 가실성당 청년회의 각오와 결심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휴양림에 드리워진 어둠과 밤은 깊어져만 갔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지펴진 뜨거운 신앙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하게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감사와 나눔



본 책자의 마지막 장인 '감사와 나눔'은 두 가지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感謝)와 사랑의 나눔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정성과 예산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피고 보고하는 감사(監査)입니다. 솔직한 진심을 나누었던 소감과, 정직하게 맺음 한 결산 내역을 함께 나눕니다.

결산 내역

구분	항목	상세 내역	금액
수입	교구지원금	교구지원금 (456,000원)	456,000원
	본당지원금	본당지원금 (133,330원)	133,330원
	찬조금	찬조금 (380,000원)	380,000원
	회비	회비 (240,000원)	240,000원
수입 합계			**1,209,330원**
지출	청춘 사진관 (기자재비)	엡손 포토 프린터 L8050, 1개 (367,670원)	422,670원
		카메라 대여 (55,000원)	
	청춘 사진관 (소모품비)	5x7 인화지, 100매 (10,500원)	43,190원
		5x7 사진 액자, 10개 (23,700원)	
		5x7 포장 비닐 봉투, 100개 (8,990원)	
	청춘 사진관 (다과비)	삼립 미니 꿀약과, 200개 (15,900원)	80,320원
		대추방울토마토, 750g, 4개 (14,380원)	
		양반 배 수정과, 500ml, 12개 (10,740원)	
		양반 오미자 음료, 500ml, 12개 (10,500원)	
		대추 슬라이스칩, 130g, 1개 (3,500원)	
		애플민트, 10g, 1개 (1,580원)	
		PET 아이스컵, 360ml, 50개 (4,990원)	
		얼음, 3kg, 2개 (6,730원)	
		일회용 접시, 12개 (12,000원)	
	도보 성지순례 및 피정 활동	세아수목원휴양림 106동, 1동 (280,000원)	392,160원
		바비큐 식재료, 주부식 및 소모품 일체 (94,660원)	
		신나무골 성지 카페 음료, 7잔 (14,000원)	
		도암지 양심냉장고 생수, 7개 (3,500원)	
지출 합계			**938,340원**
잔액		수입 - 지출 (1,209,330원- 938,340원 = 270,990원)	**270,990원**

탈리타 쿰 소감 나눔



이번 탈리타 쿰 프로그램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회의 새로운 활동과 변화된 모습에 큰 의욕이 생겼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티 가는 길 1구간 완주를 넘어, 언젠가 2구간과 3구간까지 모두 도전해 전 구간을 종주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올해 청년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청춘 사진관'입니다. 초반에는 인원이 몰려 현장 운영에 당황을 겪는 멘붕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사진을 받아 가시던 한 어르신께서 '이 사진을 TV 옆에 두고 볼 때마다 참 행복할 것 같다. 너무 고맙다.'라고 하신 말씀에 더 큰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가 전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보람을 얻은 경험이었습니다.





'탈리타 쿰'이라는 뜻깊은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기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그 순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피정 전날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려 걱정이 되었는데, 기적처럼 당일에 날씨가 맑아지는 것을 보며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느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태해지던 와중에, 저를 일으켜 세우고 이 활동에 참여하게 이끌어 주신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느껴집니다. 도보 순례와 피정 일정이 평소보다 고되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찾아올 삶의 힘듦들도 덤덤히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우리 청년회 '아미쿠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대가 없는 선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저 역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준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제 삶에서 아미쿠스 활동은 가장 큰 즐거움이자 기쁨입니다. 이런 소중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아미쿠스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바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도 많았는데, 늘 배려해 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전















“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

(마르코복음 5장 41절)

시선으로 그리고 발걸음으로 칠했던 우리의 여정,
함께 남긴 이 흔적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AMICUS

2026 탈리타 쿰 8기

가실성당 청년회 활동 기념집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